

j.j.magazine

Scent of Memory

MONTHLY LIFE DESIGN
MAGAZINE

MEMBERSHIP
MAGAZINE OF
GRAND HYATT SEOUL

March 2014
+ NO. 104



CONTENTS

10. *Editor's Note*

16. *Credits*

HERE

20. *In the Mood for Love*

22. *Twinkle Everyday*

24. *Softer, Lighter & Stronger*

26. *Wool for Spring* 계절을 거스르는 소재

28. *The Hours of Tree* 나무의 시간

29. *More Sporty, More Luxurious* 'Q'를 단 인피니티

30. *Dense Light* 울창한 조명

31. *Thanks for the Sun* 태양을 품은 조명

32. *Re Issued of the Steltman Chair* 가죽 버전의 스텔트만 체어

34. *Cafe for the Design* 건축가의 카페

35. *In a Perfect World* 완벽한 세계

36. *Design Essence of Enzo Mari* 엔조 마리의 디자인 윤리학

38. *Before It's too Late* 녹지 마, 사라지지 마

40. *Gone Too Far*

(Left)
Julian Opie
Man wearing dark glasses, texting
with his jacket over his arm. 2013
Vinyl on wooden stretcher
212.4 x 104(cm)

(Right)
Julian Opie
Finn. 2014. Paint on resin
200 x 121 x 142(cm)



JULIAN OPIE



Woman wearing black tights with her hands in her pockets and her jacket hung from her shoulder bag. 2013



Walking in Sinsa-dong 3. 2014



Walking in Sinsa-dong 1. 2014

줄리안 오피의 서울 사람들

IN SEOUL



Man with a bear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 bottle. 2013



People 2 (square). 2014



Man wearing dark glasses, texting with his jacket over his arm. 2013

1

Lily, eyes straight, head right,
slight smile. 2013

2

Julian Opie, Julian. 2012
© Julian Opie courtesy Alan
Cristea (UK)



1

“사람의 관심은 결국 사람이예요. (...) 저는 예술가로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 한 권의 책이나 영화로 만들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줄리안 오피를 만났다. 그는 국내에서 선보이는 자신의 두 번째 개인전을 소개하기 위해 국제갤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백하자면, 오피를 만나기 전날 에디터는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부터 고민했다. 여러 도시의 수많은 인물을 관찰하고,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대작가가 에디터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였다. 결국 예전에 런던에서 산 파란색 색감의 코트를 꺼내 입고 그를 마주했다.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던 그는 예상치 못한 한마디 말을 더했다. 에디터의 코트를 가리키며 “작품 소재로 쓰기 좋은 색”이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는 에디터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관찰하고, 작업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는 작가였다.

에디터(이하 J.J.) 초상화 작업하실 때 보통 직접 촬영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 얼굴 사진 찍히는 것은 싫어하시나 봐요.

줄리안 오피(이하 J.O.) 제 사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몸은 제 작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역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예요. 그렇기에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작품입니다.

J.J. 앤디 워홀 이후 팝아트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으시는데요.

J.O. 앤디 워홀은 70년대에 활동했고, 저는 그 당시 학교에 있었습니다. 앤디 워홀이 워낙 대가라 저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가 그와 비교되는 측면이 있겠죠.

J.J. 90년대부터 작업의 소재로 인물을 다루오셨는데요. 인물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 선호하는 모습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바뀌지는 않았나요?

J.O. 드로잉 스타일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디테일 없이 추상적인 원으로 그렸다면, 이번에는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려 노력했습니다. 사당동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신발의 레이스를 자세하게 묘사했고,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로 세밀한 부분에 신경 썼습니다.

J.J. 이번 개인전에는 평면 작업과 조각상, LED 등 총 3가지 매체를 활용한 연작을 국제갤러리의 두 개 전시관에서 각각 보여주는데요. 작업에서 쓰인 매체마다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J.O. 제 작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LED 작품의 경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촬영할 때 같은 속도로 걷게 했어요. 또 큰 인물을 LED로 나타내려면 더 세밀한 촬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작품은 각 인물들

의 동작이 리듬감 있게 보일 수 있는 인물 사진을 선정해 작업한 것이고요. 이 작품은 일단 3천여 장의 인물 사진 중 동작이 눈길을 끌거나 흥미롭게 여겨지는 인물을 10명 정도 고르고 나서 드로잉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평면 작품 중 전신을 그린 작품은 17~18세기의 전신 초상화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그 당시 전신 초상화는 왕이나 여왕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초상화 속에서 그들은 일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길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전신 초상화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포즈를 취한다든지, 카메라를 들고 포즈를 취한다든지 하는 초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조각상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모델로 한 작업이에요. 가끔씩 저희 아이들을 봐주러 집에 찾아오는 남매죠. 사실 3년 전부터 저는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로마 시대 조각들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제 작업에서도 굉장히 원시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J.J. 초상화의 배경색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J.O. 비닐 페인트를 활용한 초상화의 배경은 플라스틱 시트를 잘라서 쓴 것이예요. 조각에 가까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페인트보다 플라스틱 시트는 사용할 수 있는 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경색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 그림이 나타내는 현실, 예를 들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작품으로서 사람은 하나의 오브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브제와 현실의 세계 사이의 균형을 색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배경색은 간판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판이 그런 것처럼 제 배경색도 상업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J.J. LED 작업에서는 색이 빠졌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J.O. 사실 컬러로 LED 작업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지금 흑백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에 관심이 두는 이유는 색깔을 제거함으로써 그 움직임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본다'는 것은 '그 예술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읽는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테고요. 시력도 또 하나의 요소겠죠. 제가 작업할 때 작품의 여러 요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 이 작품이 어떻게 읽히기를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다기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색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한 작품 안에 인물을 몇 명이나 넣을 것인지, 성별은 어떻게 할지도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J.J. 로마 시대나 이집트 시대의 벽화나 예술품, 17~19세기 초상화, 일본 만화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것부터 새로운 것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현대인의 풍경을 그리는 데 과거의 것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나요?

J.O. 우리는 역사의 한 표면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엄청난 역사가 쌓여 있다는 것은 시대를 통틀어 불변의 법칙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 밑에 있는 것과 현재를 연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누구인지,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지조차 과거와 깊이 연관돼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예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혹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표면 아래의 것들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워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대

부분 근대와 현대를 중심으로 배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현대 작가들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나 고대인들이 만든 작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J.J.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어요. 서울의 풍경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J.O. 각 나라를 비교해보면 런던은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색감이 어두운 편이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서울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 패션이 굉장히 화려하고 디테일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있기에 그림자를 넣지 않았어요. 각 나라에서 특정 장소는 무작위로 선정했어요.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위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들에게 촬영을 부탁했죠. 처음 서울 거리 사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서 놀랐습니다. 신사동에 워낙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지요. 또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각각의 인물들이 독특한 차림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각자 자신의 비주얼한 룩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라도 하는 것처럼 독특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같이 다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인물 중 70% 이상이 여성이었고, 연령으로 보면 젊은 층이 80% 정도 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놀랍기도 했지만, 저는 각각의 개인에게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옷이나 헤어스타일, 포즈 중에는 그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작업을 위한 인물을 선택할 때는 주어진 인물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결정합니다.

J.J. 걷는 사람 시리즈를 보면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현대의 익명성에 대해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가볍고 경쾌하게 접근한다고 느꼈어요.

J.O. 사실 모든 사람이 익명성과 독특한 아이덴티티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는 각자 주민번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워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작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호나 여권번호를 가진 너무나 확실한 별개의 존재지만, 사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하나의 소유주고, 우리가 모인 세계는 하나의 미스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세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살아가고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그룹 인물 작업은 야심찬 작업이기도 합니다.

J.J.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가 잊고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도 더 전에 런던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를 안타까운 기분에 휩싸여서는 “서로의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오는 걸까? 우리는 왜 서로의 시선을 피할까?”라는 글을 적었어요. 요즘은 더 심하잖아요. 가까이 있든지 서로 알든지 관계없이 무심하고 단절돼 있는 도시인의 풍경이 더 많아졌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작가님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J.O. 저는 사실 딸에게 무척 엄격한 편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휴대폰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죠. 제가 보기에는 블로그 같은 데서 쓸데없는 것을 보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 더군요. 그래서 딸과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딸아이는 하늘을 나는 새나 주변 풍경을 끊임없이 촬영하고, 그것을 SNS에 올리느라 바쁘더군요.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요. 또 그것이 제가 제 작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J.J. 오늘 전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어도 서로에게 무관심한데요. 왜 그림 속 낯선 이에게는 관심을 갖는지 말이에요. 작품 속 인물이 유명인도 아니고요. 작가님의 초상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예술의 힘이겠지만요.

J.O. 우리는 타인을 쉽게 보지 못하죠.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관심은 결국 사람이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몇몇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셀러브리티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셀러브리티라고 정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위에 존재하는 사람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작업의 소재로 그려지면, 작품 속에 그려진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 작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술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술가로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다르고 각자 한 권의 책이나 영화로 만들기엔 충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J.J.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와 작품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J.O. 우리는 문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작품의 주제나 제목을 보고 작품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품에 ‘신사동’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 작품이 신사동에 관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노래 제목이 사랑이더라도 그 노래가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듯 미술 작품도 그렇게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시라는 것이 작가의 여러 작품 중에 극히 소수를 선정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된 이전의 다양한 작품과 배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 작품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